

해외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기술력 바탕 세계시장 개척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세계 각지에 수출 광소재 디스플레이 및 조명기기 제조업체 디엠티(대표 김대우 <http://www.dmtkorea.com>)가 미국과 일본, 태국 등 해외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조명기기사업권을 잇따라 따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디엠티는 그동안 일본과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전광판과 조명기기를 수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디엠티는 설립 1년만인 2001년 상반기 일본 도쿄 아나호텔과 후쿠오카 카지노장에 각각 20만달러와 15만달러어치의 LED 조명기기를 납품한 데 이어 태국 방콕과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등지에도 이동형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 지난 9월에는 태국 자키클럽이 발주한 880만달러 상당의 홍콩경마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권을 따냈으며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지에 LED 전광판과 조명기기를 판매하는 등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6개국에서 모두 23건, 4900여만달러 어치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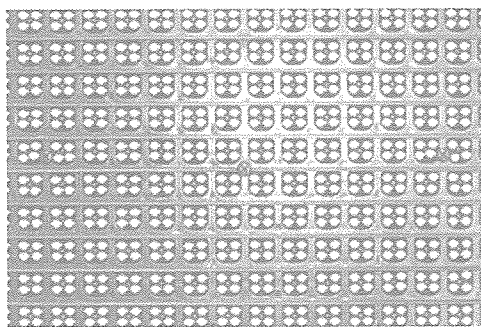
특히 디엠티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 FSE가 발주한

1395만달러 상당의 세계 최대 규모(가로 세로 420×32m)의 전광판 교체사업과 태국 관광청이 발주한 방콕 최대 규모(가로 세로 35×8m)의 LED 전광판 사업을 일본 도시바와 벨기에 바코 등 세계적인 기업을 물리치고 따내 국내외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엠티는 이번 공사를 계기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전광판 교체사업을 비롯해 프랑스 철도안내표시 시스템, 일본 KFC 안내사인판 등 대형 LED 전광판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개발 통해 고해상도 LED스크린 개발

이 회사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난해 1년동안 10억원을 투자해 35m×145m 세계 최대의 HDTV급 고해상도 LED스크린을 개발했으며 Stop Lamp겸용 차량 LED Light Bar를 개발했다. 디엠티가 개발한 LED 전광판은 실내와 실외 등 장소와 설치목적에 따라 화면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데다 무게가 가볍고 두께가 얇아 옥탑형, 벽면부착형, 차량탑재형 등 다양하게 응용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비디오 프로세싱이 뛰어나 화질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의 풀컬러 이미지 송출과 방수 기능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홀로그램 도광판을 이용한 LED 조명기기는 반구구적이며 멀티큐브 대체 품으로 일반 TV 화면보다 10배 이상 밝은 고밝기 TV(ULTV)도 개발이 완료됐다.





“해외시장에 과감히 도전한 것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직접 제품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내년초 축구장 2배 크기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발광다이오드(LED)전광판 공사에 들어가는 디엠티 김대우 사장은 요즘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사수주 이후 쇄도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이메일에 일일이 답하고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인 LED 응용제품 개발과정을 챙기고, 해외출장 일정 등을 확인하다 보면 하루가 짧게만 느껴진다고.

“2000년 12월 회사를 설립한 뒤 곧바로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마케팅에 주력했습니다. 물론 창업하기 전 5년간 치밀하게 LED 시장을 조사하고 고객을 체크해왔지요. 덕분에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고 회사도 빠르게 커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LED가 사인물과 백라이트, 조명기기, 사무기기, 신호등을 모두 대체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도 엄청날 것입니다.

후발업체로 불리한 점만 극복한다면 일본 미쓰비시와 도시바, 벨기에 바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사 탐방 (주)디 / 엠 / 티



김 사장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세계적인 LED 전광판과 조명기기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지법인 설립 통해 시장공략 강화 LED 관련 Application 사업은 향후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특히 LED Display 분야는 Digital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옥내외 Display Solution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된다.

디엠티는 이 분야에는 세계 우수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과 Financing Capacity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특히 Toshiba, Barco, Saco, Light House 등이 우수한 Brand 역량을 바탕으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밝힌다.

김 사장은 “당사는 향후 우수한 품질과 FSE 등 미국 주요 시장의 Reference를 바탕으로 디자인 및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LED Valley Project의 성공을 통해 LED 소자와 Lamp 가격, 품질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성능과 가격 차별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며 따라 디엠티는 올해 세계 각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 푸리물랭과 이스라엘 아이미디어 등 관련기업과 사업협력 관계를 맺어 시장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우 사장은 “지난해 70억원인 매출이 올해는 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LED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 기획홍보팀 윤희진〉

